

CROSSROAD

일본 동경에서 유정훈/김신혜 선교사 기도편지

노방전도

올해는 무더운 여름을 지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한국에서 초등 학생들이 선교를 도우러 찾아와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케부쿠로 역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막 배운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린이 전도 집회

여름방학 기간 중 일본인 어린이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와 거리가 먼 일본친구들을 한국 어린이들과 국제교류를 하는 형식으로 함께 게임도 하고 다과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도 6명의 새신자가 참가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제하는 언어는 달라도 서로간의 마음은 잘 통했습니다. 전해진 복음의 씨가 꼭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TOCC 섬머캠프

지난 8월에는 오야마교회 여름수양회를 가졌습니다. 도심인 동경에서 1시간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 교회에서만 만나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선한 공기와 자연 가운데 그 동안 나누지 못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야마교회의 수양회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세대를 넘어 영적으로 한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아이들도 큰 일꾼들입니다. 교회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행사를 알리기 위해 아이들도 함께 교회전단지를 넣었습니다.

전단지를 받아 본 일본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아들 영준이는 예배시간에 방송부 봉사로 파워포인트와 음양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실수도 했지만 요즘은 쿠로야나기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잘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의 일꾼으로 잘 성장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늘 저희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동경에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도 커가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함께 사역하는 기회가 많아 기쁨또한 컸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교회아이들이 선교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역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쳐 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동경오야마교회 유정훈/김신혜선교사

